경제적인 여행을 위한 편도의 기술

상품은 대량으로 구매할수록 저렴하다. 단품을 합한 가격보다는 세트 메뉴가 싸고, '묶음'이나 '끼워 팔기' 대상 품목은 단가가 낮다. 여행 상품도 매한가지다. 왕복 항공권, 열차 패스가 대표적인 '묶음 상품'이다. 왕복 항공권 요금은 대체로 편도 항공권의 두 배 이하이고, 열차 패스는 장거리 구간을 몇 번만 타도 본전을 뽑는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이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니다. 여비를 아낄 수 있는 5가지 '편도의 기술'을 소개한다.

글 박상현 기자

01 마일리지를 이용한 '편도 신공'

보너스 항공권은 적립해 둔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받는 티켓이다.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좌석 유무를 확인한 뒤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를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고 있다. 편도 항공권을 받으려면 일본과 동북아는 1만5천 마일리지, 동남아는 2만 마일리지, 서남아는 2만5천 마일리지, 유럽과 미주 등은 3만5천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너스 항공권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동남아, 유럽, 미국 등을 여행할 때 두 회사의 마일리지를 소비하고 항공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두 항공사는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한 뒤 목적지로 향하는 '이원 구간'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른바 편도 신공은 이원 구간의 공제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과 경유지에서 스톱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기술이다.

편도 신공의 활용법은 간단하다. 왕복이 아닌 편도만 고집하면 된다. 1년 안에 홍콩과 파리를 짧게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인천을 기점으로 홍콩과 파리 왕복 항공권을 끊지 않고, 인천-홍콩, 홍콩-인천-파리, 파리-인천 구간을 나눠서 발권하는 식이다. 홍콩-인천-파리 구간을 구매하더라도 인천에서 최장 1년간 머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홍콩-인천, 인천-파리 노선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천-홍콩, 인천-파리 구간의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받을 때보다 1만5천 마일리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바로 갈 때 공제하는 마일리지와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향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3만5천 마일리지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편도 신공의 또 다른 장점은 무한한 확장성이다. 여행 날짜를 미리 확정할 수만 있다면, 이원 구간 보너스 항공권을 계속 끊어 연결해 쓰면 된다. 즉 홍콩-인천-파리, 파리-인천-오사카, 오사카-인천-발리 식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인천을 중간 고리로 다음 여행지까지 고려해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아 두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원 구간의 공제 마일리지가 다소 다르다. 전반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가 적게 소요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시아나항공이 유리하다. 또 대한항공은 홍콩을 동북아로 분류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동남아 지역에 포함시킨다. 홍콩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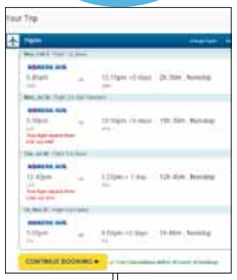
대한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보너스 항공권 평시 공제 마일리지

	구간	마일리지
한국 출발, 도착 구간	한국-일본, 동북아	15,000
	한국-동남아	20,000
	한국-서남아	25,000
	한국-유럽, 미주, 대양주	35,000
한국 경유 이원 구간	일본-중국, 동북아	20,000
	일본-동남아	25,000
	일본-서남아	30,000
	일본-유럽, 미주, 대양주	35,000
	중국, 동북아-동남아	25,000
	중국, 동북아-서남아	30,000
	중국, 동북아-유럽, 미주, 대양주	35,000
	동남아-서남아	35,000
	동남아-유럽, 미주, 대양주	42,500

인천-홍콩-인천-파리-인천 여행 시 편도 신공 이용법

	구간	이코노미 클래스 공제 마일리지
한국 출발, 도착 구간 이용 시	인천-홍콩 왕복	30,000
	인천-파리 왕복	70,000
	합계	100,000
한국 경유 이원 구간 이용 시	인천-홍콩	15,000
	홍콩-인천-파리	35,000
	파리-인천	35,000
	합계	85,000

02 항공권을 잘게 쪼개 하나로 합치는 '카약 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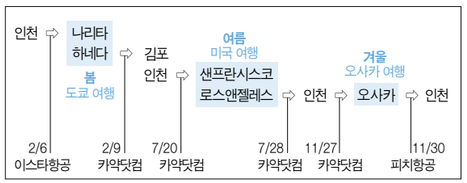
온라인 여행 카페에서 편도 신공과 함께 거론되는 은어가 '카약 신공'이다. 카약 신공은 항공권, 호텔 숙박, 렌터카 등 각종 여행 상품을 최저가로 검색해 주는 카약닷컴(www.kayak.com)에서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매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카약닷컴의 특징은 초보자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여행 구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익스피디아(Expedia), 원트래블(OneTravel), 칩오에어(CheapOair), 이드림스(eDreams) 등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제안한다.

편도 신공이 국내 항공사의 비합리적인 마일리지 사용 체계를 이용한 방법이라면, 카약 신공은 항공업계의 독특한 요금 정책을 파고든다. 보통 항공사들은 본사를 둔 나라에서는 항공권을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운임을 책정한다. 일례로 대한항공이 국내에 선보이는 인천-파리 왕복 항공권은 홍콩에서 판매되는 홍콩-인천-파리 항공권보다 가격이 높다. 운항 거리가 늘어나면 운임이 상승해야 하지만, 항공 시장에서는 종종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한국 홈페이지나 국내 여행사 웹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편도 혹은 왕복 항공권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한 뒤 다른 나라로 향하는 항공권은 검색이 쉽지 않다. 즉 홍콩-인천-파리 왕복 항공권은 항공사의 한국 홈페이지나 국내 여행사 웹사이트에서는 발권이 여의치 않다.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거주지를 외국으로 바꾸면 검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카약닷컴에서는 희망하는 날짜와 구간을 변경해 가며 염가의 다구간 항공권을 자유자재로 찾아볼 수 있다. 카약 신공 역시 편도 신공처럼 일본이나 홍콩처럼 가까운 외국에서 한국을 거쳐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장거리 노선 항공권을 손에 쥐는 것이 핵심이다. 이 항공권은 한국에서 스톱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할 수 있다. 봄에는 도쿄에서 김포로 오는 편도 항공권, 여름에는 미국 왕복 항공권, 겨울에는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끊는 식이다. 이렇게 묶어서 구입하면 각각의 항공권을 따로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하다. 카약닷컴에서 다구간 항공권을 사고, 저비용항공사의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면 적은 비용으로 1년에 세 번의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

카약 신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노쇼(No-Show)'다. 노쇼는 항공권을 산 뒤 탑승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카약닷컴에서 다구간 항공권을 구입해 미국을 다녀온 뒤 겨울 오사카 여행을 포기하고 싶다면 항공사에 연락해 노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다만 다구간 항공권은 노쇼로 처리되는 순간 남은 티켓이 모두 소멸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네 개 구간이 연결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첫 구간을 타지 않았다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가 된다.



날짜	구간	구매처	항공사	운임
2/6	인천-나리타	이스타항공 웹사이트	이스타항공	150,800원
2/9	하네다-김포	카약닷컴	대한항공	1,355달러
7/20	인천-샌프란시스코			
7/28	로스앤젤레스-인천			
11/27	인천-오사카			
11/30	오사카-인천	피치항공 웹사이트	피치항공	6,820엔

※ 피치항공에서 11월 30일 항공권은 예약이 불가능함. 5월 18일로 설정해 검색했음.

카약닷컴 도쿄(하네다)-김포, 인천-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인천, 인천-오사카 최저 운임 검색 결과

일정				항공사	운임	비고
2/9 하네다-김포				아시아나항공	282달러	
	7/20 인천-샌프란			필리핀항공	939달러	마닐라 경유
		7/28 LA-인천		필리핀항공	600달러	마닐라 경유
			11/27 인천-오사카	아시아나항공	295달러	
2/9 하네다-김포				아시아나항공	718달러	
	7/20 인천-샌프란			하와이안항공	981달러	호놀룰루 경유
		7/28 LA-인천	11/27 인천-오사카	필리핀항공	944달러	마닐라 경유
2/9 하네다-김포	7/20 인천-샌프란	7/28 LA-인천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1,787달러	상하이 경유
	7/20 인천-샌프란	7/28 LA-인천	11/27 인천-오사카	에어캐나다, 대한항공	1,868달러	밴쿠버 경유
2/9 하네다-김포	7/20 인천-샌프란	7/28 LA-인천	11/27 인천-오사카	대한항공	1,355달러	

6월 27일 인천-파리, 7월 4일 프랑크푸르트-인천 항공권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	노선	항공사	운임	비고
카약닷컴	홍콩-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홍콩	아시아나항공	1,042달러(1,127,650원)	
카약닷컴	나리타-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나리타	대한항공	1,095달러(1,185,010원)	
카약닷컴	방콕-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방콕	아시아나항공	1,286달러(1,391,710원)	
카약닷컴	상하이-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베이징	대한항공	1,503달러(1,626,545원)	
카약닷컴	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	아에로플로트	909달러(983,720원)	모스크바 경유
아시아나항공	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	아시아나항공	1,379,400원	
아시아나항공	홍콩-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홍콩	아시아나항공	8,113홍콩달러(1,132,410원)	
대한항공	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	에어프랑스, 대한항공	1,404,400원	
대한항공	나리타-파리 / 프랑크푸르트-나리타	대한항공	132,280엔(1,222,385원)	인천 경유
인터파크투어	인천-파리 / 프랑크푸르트-인천	중국국제항공	922,600원	베이징 경유

※ 홍콩/나리타/방콕/상하이-인천 노선은 3월 23일 출발, 인천-홍콩/나리타/방콕/상하이 노선은 12월 4일 출발. 환율은 1월 15일 기준.

03 마지막 구간을 버리는 '히든 시티 티케팅'

최근 유나이티드항공과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인 오비츠(Orbitz)가 스킵래그드닷컴(https://skiplagged.com)이란 여행 웹사이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킵래그드닷컴이 여행에서 금기시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오비츠가 문제로 삼은 기술이 바로 '히든 시티 티케팅'(Hidden City Ticketing)이다.

히든 시티 티케팅은 카약 신공처럼 '노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차이점은 카약 신공이 다구간 항공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히든 시티 티케팅은 편도 항공권에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스킵래그드닷컴에서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샬럿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찾으면 콜럼버스-샬럿 직항편뿐만 아니라 샬럿을 거쳐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권까지 모두 검색된다. 그 결과 콜럼버스-샬럿-내슈빌 항공권이 가장 싸다면, 이 티켓을 구입해서 콜럼버스-샬럿 구간만 이용하는 것이다. 경유지이자 '숨겨진 도시'인 샬럿이 내슈빌 대신 최종 목적지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히든 시티 티케팅은 얼마나 저렴할까.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준다'는 문구가 있는 스킵래그드닷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구간별 할인율이 뜬다. 그중 하나인 3월 12일 마이애미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살펴봤다. 이 구간의 최저가 항공권은 마이애미에서 뉴욕을 거쳐 피츠버그로 가는 티켓이었다. 운임은 약 9만9천원으로, 91.3달러였다. 익스피디아, 카약닷컴에서 직항편을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한 항공권보다 대략 35% 저렴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익스피디아에서도 마이애미-뉴욕이 아니라 마이애미-리치먼드로 설정하면 뉴욕을 거치는 항공편을 더욱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히든 시티 티케팅은 북미의 소도시에서 허브 공항이 있는 대도시로 이동할 때 주로 쓰인다. 뉴욕,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등 주요 도시의 공항은 노선이 다양해 경유 항공편이 많다. 다만 히든 시티 티케팅을 활용하면 짐을 부칠 수 없다. 체크인할 때 수하물을 맡기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버려 경유지에서 찾지 못한다.

현재 스킵래그드닷컴은 서비스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는다. '히든 시티 티케팅'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하면 '특정한 일정은 예약할 수 없다. 이를 바꾸기 위해 기부해 달라'는 메시지가 뜬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킵래그드닷컴에서 추천하는 여정을 해당 항공사 웹사이트나 다른 여행 예약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월 12일 마이애미-뉴욕 편도 항공권 검색 결과

검색 사이트	노선	항공사	운임
스킵래그드닷컴	마이애미-뉴욕(-피츠버그)	델타항공	99,085원
	마이애미-뉴욕(-리치먼드)	델타항공	122,882원
익스피디아	마이애미-뉴욕	아메리칸항공	141.1달러
	마이애미-(뉴욕-)리치먼드	델타항공	119.2달러
카약닷컴	마이애미-뉴욕	아메리칸항공	142달러
델타항공	마이애미-뉴욕	델타항공	141.1달러
	마이애미-(뉴욕-)리치먼드	델타항공	113.6달러

04 열차 패스보다 저렴한 '슈파프라이스'

유럽 여행에서 열차 패스는 필수품으로 인식된다. 정해진 기간에 기차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여행자가 선호한다.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도 적지 않다. 게다가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여행할 때 비용을 더 내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

촘촘한 철도 노선망과 운행의 정확성으로 정평이 난 독일에서는 독일 철도 패스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독일 철도 패스는 5일 연속 사용해야 하는 상품이 1등석은 285유로, 2등석은 211유로다. 한 달 이내에 사흘을 선택해 쓸 수 있는 '플렉시블' 상품은 1등석 255유로, 2등석 189유로다.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스위스 등 인접국과 연계한 상품도 있다.

하지만 독일 철도 웹사이트(www.bahn.com)에서 '슈파프라이스'(Sparpreis)라 불리는 특가 승차권을 구입하면 굳이 열차 패스를 사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조기 할인' 티켓인 슈파프라이스는 가격이 다양한데, 가장 저렴한 표는 정가의 20~30% 수준이다. 예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출발하는 표는 대부분 슈파프라이스로 구할 수 있다.

4월에 열흘 동안 프랑크푸르트,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 하노버를 돌아본다고 가정하면 슈파프라이스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국제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려면 승차권 5장이 필요하다. 각 구간의 2등석 특가 승차권 요금은 19~29유로로 모두 합해 135유로가 든다. 하지만 이 승차권들을 일반 요금으로 사려면 대략 420유로 안팎이 소요된다.

슈파프라이스는 외국행 열차에도 적용된다. 베를린에서 체코 프라하를 가는 기차나 뮌헨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오가는 노선도 최저 29유로에 표를 살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두세 곳을 거점으로 여행한다면 특가 승차권을 먼저 예약하고, 시내 교통편 이용과 명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도시별 '시티 카드'를 사는 편이 낫다.

물론 슈파프라이스에도 단점은 있다. 동일한 날에도 슈파프라이스의 가격 차가 커서 원하는 시간에 떠나는 기차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지정된 출발일 이전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도 17.5유로의 수수료가 들고, 이후에는 승차권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일반 요금으로 산 승차권의 교환과 환불은 출발일 이전에는 무료이고, 출발일이 지난 다음에는 17.5유로를 내면 된다.

이 같은 조기 할인 승차권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철도청은 파리에서 리옹, 스트라스부르, 아비뇽 등으로 가는 고속열차 티켓을 최저 29유로에 판매한다. 여정이 정해졌다면 굳이 열차 패스를 살 이유가 없는 셈이다.

구간별 2등석 슈파프라이스와 일반 요금 비교 단위 : 유로

구간	슈파프라이스	일반 요금
프랑크푸르트-뮌헨	29	101
뮌헨-라이프치히	29	122
라이프치히-베를린	19	47
베를린-하노버	29	68
하노버-프랑크푸르트	29	90
합계	135	428

※ 1월 15일 예약, 4월 초 여행 일정임. 슈파프라이스는 최저 요금. 일반 요금은 가장 많이 표시된 가격.

05 미국 일부 지역에는 없는 렌터카 '편도 수수료'

개별여행자가 증가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로 여행하면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지역을 둘러보고, 무거운 짐을 든 채 거리를 쏘다니지 않아도 된다. 동행자가 많다면 경비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빌리는 지점과 반납하는 장소가 같다. 두 장소가 다르면 소정의 수수료가 붙는다. 차량이 한쪽에만 쏠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편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렌터카 여행을 할 수 있다. 두 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고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직항편이 다녀서 많은 여행자가 찾는다. 그러나 면적이 42만㎢로 한반도의 갑절에 이르고, 북부의 델노르트 카운티에서 남부의 샌디에이고까지 거리가 1천400㎞에 달한다. 반도인 플로리다 역시 상당히 넓다.

알라모, 허츠, 내셔널, 스리프티 등 여러 렌터카 업체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코노미부킹닷컴(www.economybookings.com)에서 검색하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대여 지점과 반납 지점이 멀어도 대부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발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여행을 마쳐도 편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플로리다주 역시 남쪽의 마이애미에서 차량을 빌려 북쪽의 잭슨빌에 반납해도 무방하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대여해 오리건주 포틀랜드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돌려주면 약 300달러의 편도 수수료가 붙는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를 제외한 주에서는 대개 같은 주 내에서도 대여 지점과 반납 지점이 다르면 수수료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휴스턴과 댈러스 사이에도 '편도 수수료 무료' 혜택은 없다. 이러한 편도 수수료는 거리에 비례해 늘어난다. 스리프티 렌터카의 경우 두 지점 간 거리가 200㎞ 정도면 50달러, 500㎞는 100달러, 1천㎞는 300달러를 예상하면 된다.

렌터카의 편도 수수료가 없다면 일정을 수립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굳이 먼 거리를 주행해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내 구간별 렌터카 가격 비교 요금 단위 : 달러

대여 지점/반납 지점	두 지점 간 거리	스리프티	달러	알라모	내셔널
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	110	112	117	124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	810㎞	110	112	117	124
샌프란시스코/라스베이거스	895㎞	110	112	117	124
샌프란시스코/포틀랜드	1,055㎞	482	-	544	691
샌프란시스코/솔트레이크시티	1,195㎞	482	-	544	691
포틀랜드/시애틀	265㎞	185	-	253	639
마이애미/잭슨빌	580㎞	110	112	117	124
마이애미/애틀랜타	1,060㎞	463	473	523	664
보스턴/뉴욕	345㎞	270	243	262	676
휴스턴/댈러스	400㎞	249	255	348	721

※ 2월 17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72시간 대여. 도시 내 대여와 반납 장소는 공항. 보험료 제외. 이코노미 차종(스리프티와 달러는 리오, 알라모와 내셔널은 스파크). 두 지점 간 거리는 구글맵에서 검색.